



1. 教会에 革新을
2. 社会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

누가복음 24:1~12

정인수목사

우리가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매일 매일의 생활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의 힘을 다 잃어 버리고 기진맥진할 때가 많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기독교의 신앙에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 중심되는 진리이다. 이 사실은 장래에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고 과거에 되어진 역사가 증명하는 뚜렷한 사실이다.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의 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 개마에게 나타나시고 열두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500여명에게 나타나시고 최후에 다메섹 도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셨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하늘에 계신 본체의 얼굴을 보여 주시고 서산을 내려 오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기전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다시 사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너희들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증거이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는 죽었다가 삼일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하나님은 인류의 생과 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또한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것을 알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살명하고 제각기 자기처소로 흩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볼 때에 그들은 새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코 실망한 인생들과 후암에서 해매는 인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광명한 전도(前途)를 지시하여 주시는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뿐만이 아니라 최약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 믿음의 힘을 잃은 자 절망 가운데서 해매는 자들의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받을 것이며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빛나는 생애를 보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날에 다 이와 같이 영광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감사 합시다.

(大阪平野教会牧師)

선교 10개년계획의 전진

1968년에 발족한 선교집개년 계획은 드디어 삼년의 해를 맞이하였다.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역사를 담당한다는 교회의 모습 그대로 과거 60년의 역사의 공로를 깊이 회고하면서 일본땅에 세워진 한국인의 교회의 역사적인 환경과 피치 못하였던 경위를 해엄쳐 살아온 재일 한국인 교회의 위대한 신앙을 극히 보배로운 유산으로 지중히 여겨 선배들의 유지와 역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보다 양심적으로 보다 책임적으로 응하고자 한것이 선교10개년계획을 세운 동기였었다. 앞으로 선교70년의 해인 1978년을 향하는 10년간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재일 61만동포에 대한 교회적 책임을 감당하려던 것이다. 총회내 우리 교회전체가 각각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을 다하고 있는 나머지 선교10개년의 계획을 자기책임으로 알아 과거 2년간에 이루어 놓은 업적은 천금에 비할 수 없을 만한 것이다. 차별과

눌림속에서 생존협노에 허덕기면서 적은 수인 우리 교우의 힘으로 새로 6개소에 개척전도지를 세워 열매를 맺었다. 동경에 총회사무실을 손색 없는 규모로 설치하여 에큐메니칼적인 세계교회와 어깨를 겨누게 되었다. 단기 장기 선교사를 맞이한 선교활동으로 모국교회와의 유대와 캐나다 일본 각 나라교회와의 긴밀한 유대로써 재일 61만동포 구원에 대한 공동책임을 확립하게 되었다. 2년간에 거액의 활동자금과 전설자금을 감당 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공적이었다. 이제 가장 큰 사업으로 KCC회관 건설도 하게 되어 70년 역사의 크나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다.

大阪教会入堂礼拝

KCC전설과 공동사업으로 새 예배당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大阪교회는 금번에 건설된 KCC회관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새 예배당건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오는 3월21일 수리를 완공한 KCC회관 예배당에서 입당예배를 보

기로 하였다는데 앞으로 충실한 발전을 기도하고 바라 말지 않는다.

총회 재정 일원화에 착수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의기구개정

2월15일 名古屋교회당에서 총회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917년도부터 실시한 총회재정정책전반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하였다. 과거의 기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다루고 생각하는중 기구개정의 하나로써 재정정책의 방법이 가장 긴급한 문제로 알아 금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모든 재정취급을 동경사무소에서 총무가 장리하게 하고 총회 회계가 취급해온 재정사무일체를 동경사무소에 넘기는 동시에 총회 각국 위원회의 모든 재정을 일괄적으로 총무부가 취급하여 총회회계의 일원을 실시하게 하였다.

특히 교역자생활의 불균등과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제26회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교역자 사택최저기준을 세워 실시하게 하였다. 기준의 항목으로서는 시무년수기준 연령기준 가족기

준으로 하여 8년시무기준 35,400원 41세의 연령기준 4,000원 부인기준 (균등 5,000원 자녀(일명당 3,000원) 5명 15,000원 합계 59,400원 이것이 사택전체의 최저기준인데 시무하는 교회가 42,000원 부담할 수 있다는 재정보고에 의하여 부족액 17,400원을 총회재정국에서 보조한다는 방식으로 총회내에서 보조할 필요 있는 교회 즉 교역자 사택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 일체 조사를 하여 71년 1월부터의 실시로서 사무취급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재정정책을 실시하므로 재일 한국교회가 더 힘차게 발전 되도록 총회내 각 교회가 적극 총회재정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재정위원회가 재정확립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국 기독교 감리의 의거

1969년에 단기설교사로 퇴기석목사를 岡山개척전도지에 보낸 한국감리교회가 계속하여 岡山에 선교책임을 지고 오다가 금번에 서울종교교회(박용익목사 담임)가 일본선교의 지상명령을 받아 온 교인이 합심하여 일본선교에 힘쓰자는 결의를 하여 선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의를 보았는데 과거에 감리교회가 선교책임을 지고온 岡山에 장기선교사로 목사일인을 파송하기로 했다는 기본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국감리교회동부연회가 이성주목사를 北海道선교를 위하여 장기로 파견하여 지금 北海道전도원을 전개하고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 岡山선교를 위한 새로운 의거의 소식을 들은 재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試取日變更

1971年度 總會試取를 4月12일에 施行한다고 公告하였으나 總會諸般事情을 爲하여 4月20日(火)로 變更할것을 公告한다.

試取局長 吳 允 台

관서지방 신도회 연수회 개최

關西地方信徒會研究會

1971년 3월 2일 ~ 3일

「宝塚黙想の家」에서 18명이 모여 「70년대에 사는 신도」의 주제로써 연수회를 가졌다. 각교회의 신도회현상 보고를 교회별로 보고를 하였는데 교회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것과 전체로 보아서 부진상태에 있는 현상이다. 관서지방에서 신도회가 조직된 교회는 12교회로서 시대적인 요청도 진지하게 듣고 새로운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나가자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도회의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교회일반활동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닌 창조적인 사회참여의 자세와 활동방향을 토의하였다. 봉사적인 활동을 더욱 다양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활동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신도회로서 사회개발에 참여하면서 재일 동포 사회속에서 봉사자라는 구체적인 의결과 동시에 신도의 근본적인 예배의 중성과 성경의 깊은 연구와 성경으로 사는 깊은 신앙을 가지도록 신도회로서 노력과 훈련을 가져야 한다.

설교 강연 토의 토론의 여러 시간을 통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다루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다. 오늘의 신앙의 헛도는 상태 바위를 향하는 것같은 기도응답이 없는 전도 주와 동행하지 못한 생활 무충격의 감각 무정 무미한 신도의 교제 냉결화된 조직 위축된 사명감 무지러진 책임감 확인받은 듯한 양심 고갈화된 심령 행해화된 의식 결과되지 못한 예전 말라진 인간성 골동품이 되어버린 신조와 교권 멀어진 세계와 교회와의 거리 자나가버린 시대적각각 과거의 교회의 유해와 망령이 공중에 유랑하고 있는 것같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깊이 깨내고 다루고 쪼개고 난후,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생기를 얻어 큰 군비로 일어난것과 같이 창조적인 사고로서 앞으로 나갈방향을 모색하고 뚫쳐내고 지향하려 하였다.

중심된 과제로서 윤중은 목사의 연구발표강연이 「지역사회에서 신도의 사명」을 찾아 왔는데 많은 창조적인 사고와 사명적권익을 그려내게 되었다. 교회가 내부에서 자가증독증의 증세로서 병약해진것과 시대적 사회적 지역적 민족성적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결과된 현실을 찾아 왔다. 차별문제에 있어서 취직 취학 금융 경제 주택 언어 신적 계급차별문제 세대단절 사회과 학적인 문제 정치적문제로서 밀려오는 파류의 부딪침 거주권과 생존권과 소유권에 위협을 체득하는 현실사항을 발제로 하여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일적전체를 다루고 토의하였다. 다량의 모습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근본된 문제 다섯으로 축소하여 문제의 상황과 문제의 소질과 문제상오간 내적일관성 통일성과 단절 이질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결론과 대담을 찾아 내는 방법으로 장시간 토의를 하였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신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목표를 설정하여 막연한 출발의 폐단을 피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는때 따라 방법과 활동내용과 결과예측까지도 생겨난다. 활동방향을 전략적인 사고로서 목표에 대한 전략과 목표달성에 대한 전략적분석을 될 수 있는대로 상세하게 하면서 전략을 세운다. 전략이 세워지면 목표를 향하여 전술을 쓰고 나가야 한다. 한가지 전략에 네가지 전술을 생각하고 목표달성에 극히 성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목표달성에는 일에 따라 장시간을 요한다. 수년에 걸쳐서 부단히 노력하는에서 목표달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없이 놓여 있는 재일 동포의 사회문제를 우리 신도회가 자기 아픔으로 역기면서 창조적인 사회참여를 책임적으로 토의하였다. 교회가 막연 무책 무계획의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고 안일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현상에 관하여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모인 수는 적었으나 오늘의 교회 특히 1971년도의 신도의 자세와 교회의 혁신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결심도 가지게 되었다.

— 4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고·후5:14~21)

회 목 케 하 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마태 5:9) 고 가르치셨으며 몸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 떨어져 나간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형제자매들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힘쓰며

따라서 같은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여 사랑의 협력을 이루어 감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시로 이렇지 못한 내 모습과 우리의 서고 있는 현실을 살필 때 피로운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그 원인과 치료의 길을 찾아 다시 힘차게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사도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비방하며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

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 같이 알지 아니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연 우리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각 화목케 하는 자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철저히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모셔 드리고 거들난 새 생활로써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육체대로 죽인간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의양적인 상황과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지 가지의 편견과 비난과 분리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더우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그가 낮은 생활을 하여 죄인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증거로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를 핍박하였읍니다. 그러나 다메섹도상에서 인류의 죄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어 새 생활이 시작된 때부터는 아주 달라졌읍니다. 그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전에 중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읍니다.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바울에게는 다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의 뜻만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이와 같은 변화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하여 용서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신생이 솟아 납니다. 예수안의 신생은 새 목적 곧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며 예수님의 요구대로 행하여 그가 위하여 죽은 형제

들을 위하게 됩니다. 옛 생활이 바라던 부귀 영화보다도 사랑 의무 형제우의 봉사생활이 더 귀해 집니다. 고통 실망 난관은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교제에 새로운 의의를 가집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그 사랑의 경험은 새로운 우정처럼 다른 경험도 해명하여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사람들 사이에 개선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사람들을 새롭게 불 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볼 때에 거기에는 비난이나 시기나 다툼이 있을 수 없읍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 서로 화평하게 함을 합하고 무거운 짐도 나누어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들과 일가친척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여전도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주님을 위한 새 생활로 변화를 받아 믿음안에 서로 화목하며 화목케 하는 자의 본분을 다 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읍니다.

《아 멘》

西成교회 입당예배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50가까운 교회 가운데에서 처음되는 뽕딩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西成교회는 김원치목사의 선두지휘에 교인 전체가 건실하게 단결하여 재일 한국인교회의 선교책임을 담당한다는 민족적인 의거로서 근 9,000만圓의 거액의 뽕딩예배당을 착공하여 드디어 오는 3월21일 오전 11시부터 입당예배를 거행하고 내외명사임석하에 하나님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섬기는 자세로서 역사와 민족의 삶의 책임을 몸소 담당하려는 우리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선교자세를 그대로 실천하게 된 西成교회가 앞으로 크나 큰 선교책임을 기능적으로 감당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바이다.

宣教師の今日的課題

世界教会が今日的課題として多くの問題をかかえている中で、最も直接的な教会の問題として宣教師の問題を取り上げている。それは、福音が世界の隅々まで宣教され、そこに形成された教会の殆んどが、外国宣教師によったものであって、宣教師の在り方が、今日の世界教会の在り方を、規定づけて来た程に大きなものであったからであると言える。神学が、世界教会の公同的な教会の学となつて、教会形成に正しい体質と方向づけを、絶えず、示すようになった今日の教会は、もう既に、「教派的な、宣教師的」な教会体質から脱皮し、教会の、本質に於て、世界教会的に、教会の活動に於て、エキュメニカル的に、大きく変革されて来た。そこから、はみ出されて来たものが、宣教師であり、問題化して来たのが宣教師の在り方であつて、在日大韓基督教会と、カナダ長老教会との共同課題として、宣教師問題が提議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必然的なことであると言える。

所謂、外国人宣教師と言う存在が起つたのは、使徒時代アンテオケ教会がパウロを主体とした異邦人伝道へと、働人を送り出した時から起つたものと言えるが、今日の世界教会が問題とし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宣教師と言う存在は、540年に創設された、ジェスイット宣教団あたりからのものとして考えるべきであろう。イグナティウス、デロヨラが、聖地布教を神から示され、ザビエル外7名の者が、1534年8月、モンマルトルの丘に集り、「より大いなる神の栄光のために、AD MAJOREM DEI GLORIAM」の標語の下で、地の極まで福音の証人となることを、誓い、極東の地への宣教に出かけて行ったことから思い起さねばならない。1649年、英国に於て、ニューイングランド伝道会が起り、1701年に聖公会福音宣教協会が海外に英国人宣教師を送り出した。1722年に、チンデンドルフ伯の主動する、モラビア兄弟団が北阿、南北米に宣教師を送り出した。最も宣教師の活動が盛んになったのが18世紀であつて、1786年、メソジスト・ミ

ッションナリ・ソサエティー、1792年に、バプテスト・ミッション、1795年に、ケアリを中心とした、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印度宣教、1795年、ロンドン・ミッション、1799年に、聖公会宣教協会等が、アフリカ、アジアへと多量の宣教師を派遣した。19世紀は、アメリカの南長老派の宣教会社、リヴィングストン主唱のアフリカ宣教活動、JH・テラーの創設した印度諸島教団、19世紀から20世紀にかけて、所謂、ミッションボードを持たない教派は皆無となった。日本、韓国、言を待たず、宣教師の伝え来った基督教であり、宣教師の形成に関する教会が今日の教会であると言える。信条も極めて、教派的であり、倫理観も、宣教植民地的なものに凝結され、教会の諸儀式を始め、すべての行事が宣教師の定めたものをその儘、正統化され、継承されて来た。あらゆる国々の、所謂基督教文化と言うものが、宣教師の持ち来った、その文化であり、宣教師の宣教活動、教育事業、文化活動によって、宣教地の民族、国にそのまま植えつけられたものであつて、現地の諸民族、諸国家が長い歴史の中で育てて来た、固有の生活様式、文化、習性を否定して、宣教師的なものに変換することが正統な基督教的形態と考えるように、教会が強く主唱して来たことを否むことは出来ない。

教会の組織的体質と運営理念にしても、宣教師による従来の思考方式その儘が、こびりついて離れないのが教会の現姿であると言える。教会が今日、自主性、自給自立を厳しく主唱する場に於ても、問題の焦点は、宣教師の指導援助に対する、現地教会の、自主、自給が論議の焦点になっているのが、ありの儘の姿である。

今日、宣教師問題の要点は、「宣教師が必要であるか否か」「必要ならば、宣教師の役割は何であるか」にしば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然し本来、宣教師の本質的なものは、そうした論議を生み出した思考と全然別なところにあることを考えなければならぬ。本質的に宣教師の可否

は、人間の論議する性質のものでなく、神の定めが根底となるものである。宣教師が宣教地に来る動機は、神の至上命令に依據するものであつて、使命感が、その本質となつて、宣教の働きが遂行されて来たのであつた。地の極まで、我が証人となれとの至上命令は、すべての時代と状況を超えた、歴史の中の最高の至上命令であつて、これが宣教師と言う存在の出来た、根底であり、本質である。或、宣教地、或民族の側から要請され、それに応じて宣教師が派遣されると言え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マケドニア人の招きも、パウロの異邦人伝道と言う神からの使命の枠内に於て起つたことである。小アジアの宣教活動の延長として、マケドニアの幻に接したのであつて、マケドニアの招きがなくとも、異邦人伝道はなされていたのであつた。

宣教師必要の可否は神の定め給うことであり、宣教師とは、神から使命を与えられ、神から派遣されて宣教地に赴くと言うのが本質である、その教派、教団の如何なる組織も、手続も、機構も、すべては、神の至上命令遂行の為の行程であつて、宣教師自身の自主的な召命感によるものである。宣教地の人民が受け入れようと、受け入れなかつたと、その可否によるものでないのである。宣教師が宣教地に赴いた時、宣教未開地に於ては、招かれざる異教徒として迫害と抵抗に出会いながらも宣教師は神の召命に応じて来たのであつた。既に教会の形成されたところでは、共同宣教を宣教師側から懇請すべきであつて、決して、既存教会、現地教会が宣教師の指導、援助を要請し、計画して、宣教師を招き受け入れるべき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宣教師は自らの使命遂行の方法に於て、現地教会に共同作業を懇請し、現地教会の協力と、或種の指導を得て、自らの宣教的使命を、より効果的に遂行しようとするのが本質である。現地教会は宣教師側の要請に対して、可否を議し、共同の宣教活動の可能な場合、共に力を合せ、自主的使命遂行の場に於て、宣教師との共同責任を負い遂行されるのが本質である。宣教師も、現地教会も、すべて、本来的に神よりのものであつて、人によるものでなく、人よりのものでなく、各々、自

主的であり、自立しているものである。今日、教会が自主自給を論ずる時、宣教師の指導、援助から離れることを、自立自給と考えるところに、根本的、本質的な思考の誤りがあるのである。

世界、いづこに於ても、主の来り給うまで宣教の要は無限である。その責務は、尽きるところがない。現地教会が宣教師を、必要と考えようが考えなかつても、宣教師は神の召命に応えねばなるまい。神が宣教師を派遣し給うのに何者がこれを拒み得よう。宣教師が、或民族に愛と真実を捧げようとして出で来ることを誰が妨げ得よう。

カナダ教会が、神から宣教師派遣の中止を命ぜられた時は、宣教師を中止させるべきであらう。神が在日韓国人救霊の為、カナダ教会に宣教の使命を命ぜられている間、宣

教師を送ってくるであらう。そして、カナダ教会が我々に共同活動を要請する場合、我々は、その深い神の御摂理を信じ、宣教師の真実な友愛を貴び、親しみと、尊敬と、愛をもって、喜びの内に宣教師を迎え、宣教師の持てる賜物に従つて、最も機械的な働きの可能の為、共に考え、協力するであらう。カナダ教会が宣教事業の為、金銭の出費を希望して来るならば、我々は深い理解と善意をもって最も神の栄光の顯れる為の用途を提供するであらう。我々の願いは、61万同胞の救いであり、カナダより来る宣教師の願いも、61万救霊にある時、神の召命に互が、より効果的に応えん為、全力を尽して共同責任を担うであらう。神の栄光の為、最も価高く意義深く、宣教の業を神に捧げることには於てやぶさかでない。

斗争の神学 — 4 —

金 承 俊

この闘い給う(出14・14)、焼き尽す火の如き(へ12・29)、公平と義なる(詩9・8)、聖なる(イ6・3)又、霊なる(ヨ4・24)神に捉えられ、その何かに触れしめられる時、我という現実のあるがままの存在そのものが、内部から崩壊して行くのを覚えせしめられる。それは単なる無だとか、深淵だとか云うようなものを越えた所の、何と表現すべきか分らないような「絶対的な絶滅」とも云うべき所へと導かれる。そこでは自分というものの残される余地が全く無いのであつて、完全なる自己崩壊しかない。それでいて、なおかつ、死ぬことなく、それを通して新たに生かされる神のいつくしみ、これを旧約は一貫して我々に教えているように思うのである。それ故に、神とは？と問われても答え難き何かがあるのである。外から説明する事は易しいが、それは本当の知ではないのである。従つて、「我、知る為に、信ず。」で行かねばならない。即ち、信ずる事その事が認識そのものとなること、知ってから信じましようではなくて、信じつつ、知って行き、その教えと、要求を守り従つて行く中で、豊かな神認識に至る、否、導かれると云う事で

ある。それ故に、何事も先づ聖書から出発しなければならぬ。すると、聖書は、神を先述のような方として示し、哲学の云うような、無限にかけ離れた冷めたい不動の神ではなくて、永遠・無限でありつつも、なお、人格者として我々を追い掛け、近づき、迫り給う方として示しているが故に、我々が彼を唯一無二の真の友として、彼に真実なる祈りを捧げることも可能なのである。

所で、神は父と子と聖霊の(マ28・19)三位一体の神として教えられている。三位一体とは何か？これも答える事が易しくない。エロヒーム(エローの複数)という神名の中に既に、三位一体なる神観がは入っていると、天地創造の所で、神が「われわれにかたどつて人を造り……(創1・26)」と云われた言葉の中に、その概念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説もある。いづれにせよ、永遠なる神を、我々自身の頭で考える事自体が畏れ多い事なのであるが、神の御働きを二つに分けて考えると分り易い。一つは、神御自身の内部に於ける父・子・聖霊を通しての永遠の御計画の聖定の御働きが考えられる。そして、ここでの事柄は、我々に(4頁へ)

宗教シリーズ

『は かな さ』

私の車が廃車寸前になった、新車の時から私の長い歴史があった。毎朝磨き上げ愛撫した車、九州まで3回、美しくスマートな姿でさっそうとして走ってくれた。韓国からの来客を乗せるたびに賞讃された車であった。それが、何れ近い日に、廃車の山の中に捨てられ、スクラップとして、へし曲げられ、火の中に投げ入れられるのが目に見えるようである。1970年の万博は、世界の文化の粋を集めたと言う。日に70万の人を集め、各国の元首を迎え、華麗を誇り、数時間の列の中で、パピリオン入場を待たせた万博であったが、今は木枯にし、打ち壊された鉄屑木屑が寒々と声もなく散在している。

古城に映える月、葬列に人の世の悲しみを訴える声、美貌を誇り、歓声の花吹雪に狂喜し、美声に幾万の聴衆を恍惚とさせた名歌手が冷い骸となって、葬むられ、華やかな人生も短い夢として消え去って行く。

諸行無常と言う、生ある者は必ず死す、形あるものは必ず壊る、英雄の墓に感を深うするまでもなく、名声も権勢も、栄冠をもぎ取られた瞬間、孤独に冷やかな生へと追いやられる。例外のない人間の歩む生の姿である。聖書は、「死への生を」その人生観の中心として教え、それへの解き明しと、答えとをもって救いとしている。「はかなさ」は仏教のみの宗教心でない。人とは、「はかなさ」の中に生き、はかなさの路を一生と言い、生涯と言う。「はかなさ」を、思考の外に追いやり、現実の栄誉と華麗をのみ、すべてと思い、幸福に酔いしれることを、生き甲斐として追い求めるところに、生のあるが如く思うのが人の常である。恰かも、死刑囚の狂乱に似たものが、人ありのままの姿と言えよう。何れ来る、滅の法、避けることの出来ない死と滅の法である。宗教とは、死への生、死に向い、死を予期し、死への直視である。死よりの逃避でない、死への目かくしでない、死への諦観でもない。死を越えた生、死に向わぬ生、死に勝つ生、「死のない生」「は

かなさ」のない栄誉と華麗、「はかなさ」の陰から救い出された幸福である。聖書を貫く「生命」とは死のない、死の予期しない生である。キリストが死に勝ち、死の権力を打ち砕き、復活の主となられたことは、死のない、時間のない、永遠と言う神の世界を、人に与えられた只一つの出来事である。はかなさを直

視するところにこそ、宗教があり、はかなさをはるかに越えた世界が、キリストの世界である。旧約の伝道者が「見よ、皆、空であって、風を捕えるようなものであった。日の下には益となるものはないのである。」と嘆じた人生観が「死の恐怖のために一生、奴隷となっていた者たちを解き放つため」に受肉し、十字架の苦難を負い給うキリストによって「死のない、死を越えた、生の世界」を、恩寵として賜ったのが、キリスト教と言う宗教の真髄であり、東洋の諸宗教に新しい生の光が照らされたのである。

民団西成青年会に

陸女史(朴大統領夫人)から記念品

民族心を高めるため文化サークルに使ってほしいと、朴大統領夫人陸英修女史からこのほど、15年間もサークルなどを通じて同胞子女に祖国愛を植えつけてきた大阪の一民団支部に、心暖まる記念品が贈られてきた。

金鎮弘駐大阪総領事は、さる2日総領事館に民団大阪西成支部の南啓台支団長、金基閔副団長、金聖基青年会長、裴戊息婦人会長、徐福順副会長、尹在一青年会(会計)ら

を招き、朴大統領夫人、陸英修女史から西成支部に下賜された民俗歌謡と軍歌のレコード版(7枚)を南支団長に伝達した。

これは当支部の青年会主催で昨年11月15日当支部韓国学園の講堂で催した文化祭の折、本国から技術研究員として日本に派遣している許炳済氏がこの文化祭を観賞していた。

在日同胞二世たちによるこの韓国民謡と舞踊に大変感銘



を受け、この文化祭のいきさつを陸女史に報告したところ、陸女史は大変喜ばれ、同胞二世たちが祖国愛に燃え、自ら進んでサークルなどを通じて幅広く活躍している青年たちに感心され、記念品が下賜されたもの。南支団長は喜びを次のように語った。

西成支部で韓国学園を開講して15年以上になりますが、はじめて文化祭を開いてこのような名誉ある記念品が下賜されるとは、本当に嬉しい。これからも継続して一層立派なものにしたい。

(三面よりつづ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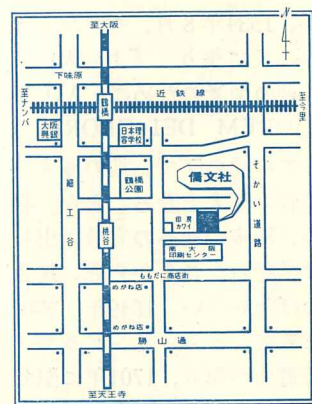
は知りようがなく、これを考え得るといえるのは、第二番目の神の外的御働きが、この現実を通して為されているのを通してである。父なる神は、天地を創造し、それを支え、治め、導き給い、知恵と力と聖と義と慈悲と真実とを、この地上に実現し給う。そして、一切の善きもの、美しきもの、生きとし生けるものの根源者で居まし給う。所が、父なる神御自身のみでは、あまりにも恐るべき方なのである。存在する一切のものを根底から、虚無と絶対なる絶滅を以って脅かし、臨み給う闘いそのもの、焼き尽くす火の如き霊そのもので居まし給う方である故に、この父なる神が、子なる神を通してのみ、生ける者を、絶滅によって滅したり、無の深淵に陥し入れ給うことなく、一切を、知・力・聖・義・愛・真とに於て、支え、治め、導き、この地上に具体化し給うのである。それ故に、御子のない御

父が在り得ないのと同様に、御父のない御子のみというのも在り得ない。そして、この御子を通しての御父の働きが、現実の歴史的事件に、又個人一人一人の心に効果的に働き導き給うのが御霊なる神なのである。これは三神ではなくて、三位格の御働き、職務の相違であって、これらが一つとして働き給う故に、三位一体なる唯一の神なのである。父なる神が一切のものをたらしめておられると共に、時には、その根底から絶滅の脅かしを以って圧倒し絶望へと追いやり給うのは、そうする事によって、子なる神へと向けさせ、導き給う為なのである。我々が現実の中で、時に火の如き霊に触れて、心が燃え、怒ったり、義憤に燃えたり、闘争心を起したりするが、それは自他共に破滅へと導くものであって、創造に到らず破壊に到る。この世の一切のものも、有益で善く見えても結局は自らを破滅へと導くものであって、人間はそれに自ら進んで手を貸し、突進している。それは、御子なるキリストを抜きにしているからである。この世の中には、常に悪で、常に善というようなものは在り得ない。火・力は周囲に満ちている。それが、一切を絶滅へと脅かしている故に、御子を仰ぎつつ、見張らない時に、いつの間にか、我々を破滅へと追いやってうのである。この世の力や人間は皆、瞬間たりとも、御子を通して見張らないと悪の手助けをするか、悪魔の様なものになり易い。彼なしには、今の瞬間がどこにあるか分らない。 — 続く —

(岐阜教会牧師)

←金鎮弘総領より記念品を受ける南団長
(大阪総領事室で)

印刷라면 멋지게 하는



新聞・カタログ・雑誌
ポスター・事務用印刷
韓国文翻訳・印刷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町2-335
電話 (06) 716-5046 (〒544)

韓国語学校
受講者募集

所定のカリキュラムによって韓国語をお教えいたします。どなたでも各自の希望するコースでたのしく、しかも科学的に学習できるように専門的な一流講師陣を揃えた、日本に唯一な韓国語学校です。勿論、年令、性別、学歴、国籍に関係ありません。

・韓国に訪問、観光、其の他の旅行を希望する方。
・対韓貿易、其の他の業務に従事する方。
・韓国に留学を希望する方。
・韓国語を学ばたい在日韓国人の方。
・韓国語を比較言語学的に研究したい方。等の目的を以て韓国語を学びたい方。

A、初級コース 火、金曜の午後六時から八時まで。(三ヶ月間)
B、中級コース 月、木曜の午後六時から八時まで。(三ヶ月間)
C、研究コース (六ヶ月間)
費用 入会金三、〇〇〇円 授業料月二、〇〇〇円(各コース共同)

☆くわしいことは左記に問い合わせて下さい
〒五五七 大阪市西成区梅通五十二

在日大韓基督教大阪西成教会内

大阪韓国語学校

電話 (〇六) 六五一五一九六